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어베주지춤



일시 : 1984. 9. 21~23

장소 : 충북충주공설운동장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 격려사

## 제25회 全国民俗芸術競演大会에 參加하면서



우리民族은 유구한 歷史와 찬란한 文化를 지니고 다른 어떤 外勢에도 屈함이없이 고유한 文化藝術을 꽃피우면서 희망찬 先進祖國 創造의 새時代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文化藝術은 人間만이 창출할 수 있는 정신적 所産으로서 그것은 한 國家와 民族의 水準을 가름하는 尺度인 동시에 未來를 향한 發展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더욱이 全斗煥大統領 閣下께서는 이번 역사적인 日本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太平洋時代의 主役으로서 국제적地位를 크게 쌓아올렸음은 물론, 과거 不幸했던 한때 우리를 支配했던 그들 文化의 뿌리가 우리나라로부터 闕源되었다는 사실

을 확인한 것은 앞으로의 文化史를 定立해 나가는데 새로운 里程標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같은 때에 즈음하여 우리 祖上들의 빛난 열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 25회 民俗藝術잔치가 유서 깊고 전통있는 忠州市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서 계절의 豊饒로움과 더불어 다 같이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咸鏡北道는 지리적으로 東北方과 인접해 있으므로 매우 접촉이 잦아 北我間에 비슷한 信仰·風俗·風習과 有形無形의 民俗的 藝術과 民謡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道에서 출연하는 “에베주지 춤”은 豆滿江을 사이에 두고 北間島 지방에까지 이르는 山間마을 “在家僧마을”에서 설이나 대보름, 단오, 추석같은 때에 놀이하는 破戒僧들의 춤의 일종인데, 學界의 考證을 받아 咸鏡北道 民俗保存會에서 오랜 연구끝에 내어놓은 民俗놀이의 하나인 것입니다.

共産治下에 있는 우리의 故鄉땅에서는 그네들의 의도적인 抹殺政策으로 고유의 民俗문화까지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이를 길이 傳承시켜 그 脈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모름지기 고향을 잃은 우리 失鄉道民의 至高의 責務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錦繡江山 三千里 방방곡곡에서 先祖대대로 연면히 이어 내려온 우리 고유의 民俗놀이와 民謡를 발굴하여 그 고장 文化藝術의 傳統을 가꾸고 後世에 길이 물려주고자 마련된 이번 競演大会에 출연하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大会를 주관하는 文化公報部 관계관과 忠州市長의 勞苦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내고장의 民俗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는 출연자 여러분은 평소 닦은 技芸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고장 民俗藝術의 眞價를 널리 宣揚하고 커다란 結實을 얻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84年 9月 20日

咸鏡北道知事 金 東 石

# 축 사



菊花의 香氣와 和合의 熱氣가 充滿하고 豊年을 구가하는 가을 하늘아래 오늘 이곳 由緒깊고, 山紫水麗한 忠清北道 忠州市에서 우리겨레의 傳統文化芸術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제 25回 全國民俗芸術 競演大會가 開催된것을 充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이 뜻깊은 行事に 우리 咸鏡北道에서는 白頭山の 精氣를 이어받은 先祖들의 崇高한 精神과 道民의 矜持를 後世에 保存 傳承하기 위하여 本道 民俗芸術팀이 參加하여 出演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成果를 거두기를 期待하겠습니다.

祖國의 分断으로 말미암아 지금 北韓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共產主義者들이 民俗文化抹殺政策으로 因하여 異質化 또는 漸次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実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豆滿江을 사이에 두고 北間島 地方에 이르는 많은 놀이와 노래로서 傳來하여 온 것을 調査 發屈하고, 研究하며 계승 伝修하여 郷土文化를 되살려 그 眞價를 널리 宣揚하고 나아가서는 平和統一이 이룩된 후 이를 傳承하고자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波鳥 李浩舜 保存會長이 애써 故郷의 山間마을에서 설이나 대보름, 단오 추석 같은 名節밤의 놀이 中에서 “어베주지춤”놀이를 擇하여 出演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今年에도 유감없이 그 技倆을 發揮 咸北의 民俗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大會를 主管하신 忠州市民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는 同時에 深深한 感謝를 드리면서 人事로 가름합니다.

1984年 9月 20日

咸鏡北道中央道民會

會長 金 東 秀

## 어베주지춤의 유래



우리나라의 地理上으로 第一 北쪽에 위치한 咸鏡北道는 산세가 험하고 깊으며 豆滿江을 境界로 中國大陸과 接境하여 옛날부터 女眞族의 侵入이 끊이지 않았었다.

山이 첩첩 천봉인데 山에 對한 영엄한 說話가 있었고 이러한 山間地方에 고유의 民族 民俗놀이 中에서 어베주지춤이 있었다. 우리 옛 속담에 우는 어린이를 달랠때 咸鏡北道 山間地方에서는 어베주지(산짐승을말함)가 온다하면 울음을

뚝 그쳤으니 어베주지하면 男女老少 할 것 없이 무서운 形態의 最上의 것으로 生覺하였다.

實際로 山속 깊숙이 살고 있었던 山間 사람들은 대개가 女眞族의 후예로서 즉 秋夕이나 대보름등 명절때면 마을 사람들은 빙 둘러 앉아서 어베주지춤 놀이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쫓고 또 한편에서는 쫓기는 가운데 女子가 男裝도하고 무서운 탈을 쓴 “즉” 주지 괴물들은 개가죽 옷도 입고, 탄재(담요)도 쓰고 하여 춤을 추는데 특히 무서운 괴물같은 특유의 움직임이 상징되는 춤사위이다.

체바퀴에 광목천을 썬어 양초를 녹여 발라서 북을 대신하여 장단을 치고, 혹은 양푼 같은 것으로 징을 대신하였다. 나무 함지에 물을 담고 바가지를 얹어 놓고 노래를 부르며 숯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장단을 쳤다. 이 춤은 실제로 在家僧마을 주지놀이에서 전승되었다.

※ 昭和 11年 朝鮮의 郷土誤樂 咸北編考證

※ 1978年 4月 30日 咸北會寧郡誌 202頁 生活風俗考證

1984年 9月 20日

咸鏡北道民俗藝術保存會

會 長 李 浩 舜

# 어 베 주지 춤

## 第1科場

함경북도 깊은 山中의 마을 사자탈, 호랑이탈, 귀신탈, 주지탈을 쓴 춤꾼들과 村民 아낙네들 10餘名이 행렬을 짓고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舞台위에 登場한다. 村民들과 아낙네들은 탈꾼들을 가운데 두고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中央의 탈꾼들은 경충경충 뛰면서 한바탕 흥겨웁게 춤을 추면서 어울리어 돌아간다. 이윽고 탈꾼들은 舞台 뒤편으로 퇴장한다.

## 第2科場

村民들과 아낙네들이 舞台 中央으로 나오면서 춤을 춘다. 그리고 애원성을 합창한다. 이윽고 村民과 아낙네들은 舞台 주위에 놓인 물함지박 바가지가 놓인 자리로 가서 앉는다.

## 第3科場

무서운 짐승 假面을 쓴 무리들이 무대 左右편에서 뛰어나와 이상한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舞台中央으로 나온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자기자리로 돌아간다. 신이 난 무리들은 左右前後 빙빙돌아 가면서 춤을 춘다. 이때 다시 괴상한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사자 假面을 쓴 무리가 동네사내 아이를 훔쳐 업고, 舞台로 올라온다. 사자는 어린애를 얼리는 시늉을 하면서 다른 괴물들과 어울리어 좋아라 춤을 춘다. 이윽고 괴상한 소리와 함께 주지의 부하가 튀어나온다. 이리 저리 살피면서 춤을 춘다. 한쪽으로 달려가서 자기네 두목을 인도한다.

## 第4科場

가죽을 쓴 주지가 얼굴을 가리고 무대中央으로 나오니 다른 탈꾼들은 기가 질려 가장자리로 물러난다. 이윽고 주지는 얼굴을 나타내니 얼굴은 붉고 무슨 짐승같기도 하고 귀신같기도 한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한층 더 놀란다. 이윽고 주지는 동네 사람들을 둘러보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처녀를 끌어오게 한다. 놀란 처녀는 도망하려 하고 부하는 잡으려 하니 동네 아낙네들은 좋아라고 웃는다.

이윽고 끌려간 처녀는 주지와 춤을춘다. 다시 신이난 호랑이, 사자, 도깨비 탈꾼들은 춤을 추고 동네사람들은 장단을 친다. 얼마후에 탈꾼들은 동네사람 한데가서 金品을 강요하고 이를 두목에게 바친다. 이윽고 주지도 괴물들을 데리고 또 처녀를 끌고 퇴장한다. 그러나 처녀는 곧 도망쳐서 동네어른들 앞에 나타난다. 동네사람들은 좋아라 장단을 치고 춤을 춘다. 이때 다시 登場하는 탈꾼들도 村民, 아낙네들과 한데 어울리어 춤을 추면서 끝이난다.

## ★ 출연자 명단 ★

성명	성별	연령	담당배역	성명	성별	연령	담당배역
이호순	남	59	징	차종담	남	71	노래
채용문	남	67	어베춤	이명순	남	64	춤
차금순	여	73	장고	김사범	남	58	춤
김윤신	여	59	승무	허활	남	57	어베춤
전채금	여	64	북	박재성	남	56	어베춤
최금순	여	65	북	이주암	남	68	춤
안정림	여	61	춤	김해주	여	60	물장고
유청숙	여	61	물장고	박옥주	여	66	물장고
현동범	남	62	어베춤	임정규	여	67	승무
최권준	남	65	승무	이미숙	여	48	승무
한선	남	66	승무	송춘실	여	58	춤
장경려	여	56	승무	최혜정	여	52	춤
김옥진	여	69	승무	김수영	여	60	춤
최난철	여	58	승무	손은숙	여	55	춤
이길부	여	69	승무	김경숙	여	40	춤
박승옥	여	62	승무	노춘애	여	42	춤
석춘성	여	63	승무	장영경	여	51	춤
이진옥	여	60	징	김연	여	43	춤